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서울북부지방검찰청**  
**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서인선**  
 전화 02-713-4866

**보 도 자 료**  
**2023. 2. 2.(목)**

주책임자 : 합동수사단장  
 전화 : 02-3399-4470

**제 목**

**국가 지원금 편취, 재산국외도피 사범 엄단**  
 -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4개월 중간수사 결과 -

**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**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(단장 유진승)은 '22. 9. 30. 출범 이래 국무조정실, 국민권익위 등에서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하여,
  -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「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」에 따른 국가지원 대출금 합계 557억 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(화성·천안·김제·김해·공주 등 전국적으로 산재) 시공회사 대표 3명,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「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」에 기한 연구 개발 사업비 14억 원을 편취한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 1명,
  - ③ 조세피난처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법인 자금 540만 달러 (약 61억 원)를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반출, 재산국외도피한 합판 등 제조기업 사주 1명 등
- 총 5명을 구속기소(총 38명 입건)하고, 관련 자산(66억 원)을 동결하였음**
- 향후에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**유관기관과 협업**하여 국가재정 침해사범들을 엄단하고,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고를 지켜내겠음
- ※ 합수단 구성 : 검찰(21명), 국세청(4명), 관세청(2명), 예금보험공사(2명), 금융감독원(1명)

## 1. 피고인

- AOO(33세, ㄱ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)
- BOO(46세, ㄴ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)
- COO(56세, ㄷ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)

## 2. 공소사실의 요지

- (AOO) '19. 7.~'22. 2. 총 143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합계 180억 원 편취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]
- (BOO) '19. 5.~'21. 12. 총 236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38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합계 315억 원 편취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]
- (COO) '20. 8.~'22. 9.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합계 62억 원 편취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]

## 3. 수사 경과

- '22. 10. 13. 국무조정실, 대검에 수사의뢰
- '22. 11. 9. 합수단, AOO·BOO·COO 회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'22. 12. 9. AOO 구속 ⇨ '22. 12. 27. 구속기소
- '22. 12. 15. BOO 구속 ⇨ '22. 12. 30. 구속기소
- '23. 1. 16. COO 구속 ⇨ '23. 1. 31. 구속기소

#### 4.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가.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(財源)으로 하는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

-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금융기관이 발전사업자 등에게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·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,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**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**이 가능하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그 대출 재원으로 제공하는 지원 사업임

※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, 국민들로부터 **전기요금의 3.7%를 부담금으로 징수**하여 조성하는 기금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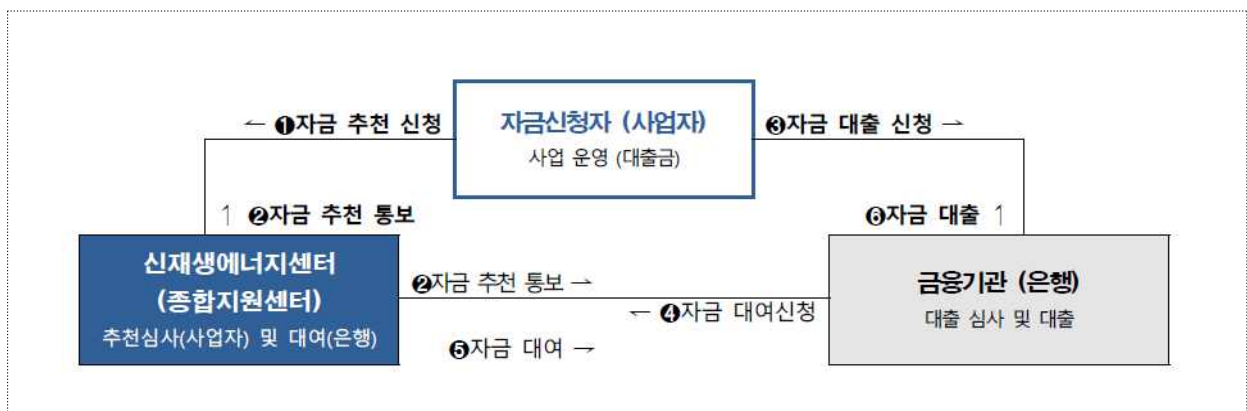
나. 허위 증빙 제출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(합계 557억 원) 규명

- 위 사업에 기한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절차는 다음과 같음

- 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발전사업자(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시공업체)가 **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**(이하 '센터')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예정임을 소명하여,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**금융기관에 대출 신청**함
- ② 금융기관은 위 자금추천서 및 공사금액 증빙자료(공사도급계약서, 세금계산서)를 검토한 후,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대여받아 발전사업자 또는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의 70~90%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

※ 나머지 공사대금은 발전사업자가 직접 자부담해야 하는 경비임

#### < 금융지원사업 운영 구조 >



-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(이하 '합수단')은 전국에 산재한 411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압수한 후, 330여개 계좌 추적, 태양광 설비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등 회계분석, 조작된 자료에 대한 포렌직, 문서 감정 등 진행
- 수사 결과, ㄱ, ㄴ, ㄷ법인이 공급가액(공사대금)을 조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, 마치 발전사업자의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빙을 만들어 센터와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 합계 557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및 문서위조·행사 등 그에 수반한 범죄 혐의를 모두 입증하고 운영자 전원 구속

#### 다. 향후 계획

- 합수단은 구속기소한 시공업체 대표들 외의 **본건 관계자들 17명을 입건**하여 수사 중으로, **유관기관과 적극 협업**하여 태양광을 비롯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지원금에 대한 조직적인 편취 범행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임

## II

###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 관련

#### 1. 피고인

- DOO(47세, 데이터가공 회사 ㄱ법인 대표)

#### 2. 공소사실 요지

- '21. 5.~12. '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'을 수행하며 허위 직원 50여 명이 실제로 근무하거나 가공거래임에도 실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이하 '진흥원')을 기망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합계 13억 7,000만 원 편취 [특경법위반(사기), 보조금법위반 등]
- 허위 직원들이 ㄱ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'피보험자 이직확인서'를 제출하고, 허위 직원들이 이를 토대로 '22. 1.~7. 실업급여 합계 2,600만 원을 수령 [사기, 고용보험법위반]

#### 3. 수사 경과

- '22. 10. 5. 국민권익위원회, 대검에 수사의뢰

● '22. 12. 9. 합수단, DOO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

● '23. 1. 16. DOO 구속 ⇨ '23. 1. 31. 구속기소

#### 4.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##### 가. 대형 국책 사업을 위해 출연된 국가보조금

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에 지능화 혁신을 촉진함과 아울러 데이터 구축 과정에 수반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사업임

-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이하 '진흥원')은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관한 150개 과제를 지정한 후 공모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연구인력을 보유한 업체들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·협약 체결한 다음 해당 기관에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급하고, 사업수행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진흥원에 보고함

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위 사업을 위해 국가보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 2,925억 원을 진흥원에 출연

##### 나. 조직적·지능적인 보조금 편취수법 규명

● 합수단은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압수한 후 130여개 계좌 추적, 관련 자료에 대한 포렌직, 음성분석 등 진행

● 수사 결과, ㄹ법인은 연구개발(과제수행) 인력으로 등재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(이하 '허위 인력') 수십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이 실제로 연구개발에 투입될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진흥원으로부터 복수의 과제를 수주하여 사업비 **합계 14억 원**을 편취하였고,

- 나아가 수령한 사업비를 ① 허위 인력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현금 또는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거나 ② 용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관계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자금세탁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데이터 구축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 입증하여 업체 대표 구속

## 다. 향후 계획

- 합수단은 구속기소한 데이터가공 업체 대표 외의 본건 관계자들 8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으로,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 국가보조금에 대한 고질적·조직적인 비리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임

## Ⅲ

###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 비자금 조성·유용 사건

#### 1. 피고인

- EOO(51세, 합판 등 제조회사 ㄱ법인 부사장·실제 사주)

#### 2. 공소사실 요지

- '09. 3.~'20. 6. ㄱ법인이 원목·베니어(합판 재료)를 수입하는 무역거래 과정에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들이 위 거래를 중계하는 정상적인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여 ㄱ법인 자금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, 합계 61억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부동산·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·횡령) 등]

#### 3. 수사 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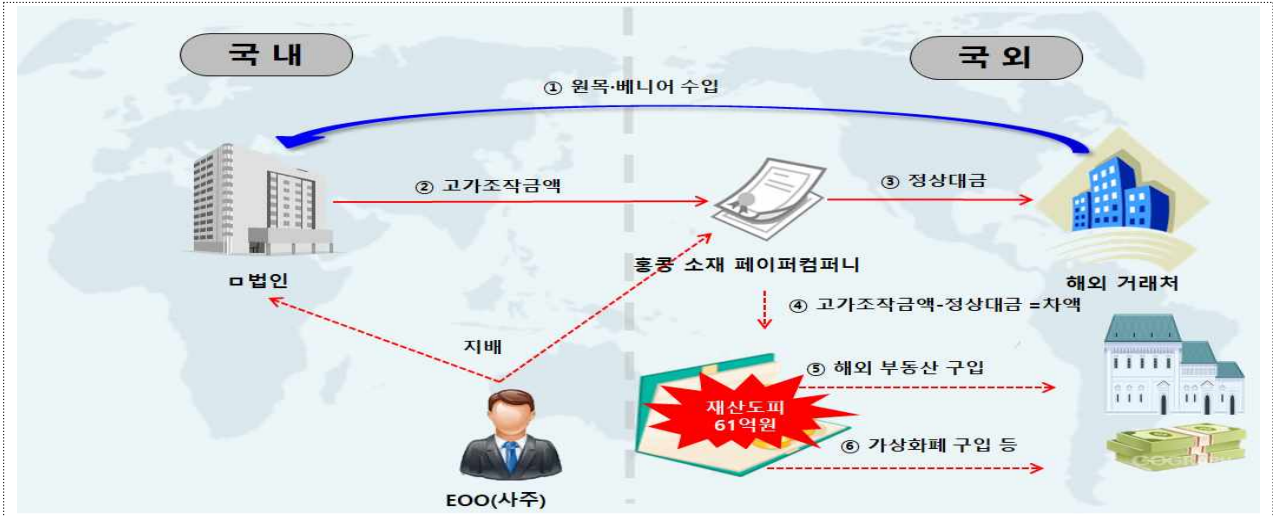
- '22. 4. 25. 서울세관,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및 송치
- '22. 10. 17. 합수단, 위 사건 이송받아 수사 착수
- '22. 12. 23. EOO 구속 ⇨ '23. 1. 10. 구속기소

#### 4.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##### 가.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법인 자금 국외도피·횡령

- 본건은 상장법인(이하 '법인') 사주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, 법인과 해외 거래처 사이의 무역거래를 위 페이퍼컴퍼니들이 실제로 중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법인 자금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,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·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사안

## < 범행 구조도 >



### 나. 지능적이고 은밀한 국부유출 범행의 전모 규명

- 합수단은 해외 기업인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한편,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치밀하게 자금추적·회계 분석 등 진행
- 수사 결과, EOO가 ① 조세피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를 모회사로 하여 또다른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여러 단계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들을 만들어 범행을 은폐하고, ② 현지인 수인을 고용하여 위 페이퍼컴퍼니들이 정상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데 동원하였으며, ③ 무역대금을 위장하여 법인자금을 해외 반출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60억 원이 넘는 국부유출 범행을 저질러 왔음을 규명
- 유출된 국부를 환수하기 위해 EOO의 재산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추정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, 추정보전 대상 재산 중 피고인의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진행 중

### 다. 향후 계획

- 합수단은 향후에도 국세청·관세청·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 공조하여 재산 국외도피·역외탈세 등 국부 해외유출 범행을 계속 추적·엄단할 예정임